

金鍾泌 민자당대표

科總은 신경제 건설에 앞장서야

회장단 예방...과총활성화계획 보고받고 당부



◇金鍾泌민자당대표위원

金鍾泌 민자당 대표위원은 6월23일 閔寬植 명예회장을 비롯한 成樂正 회장, 鄭助英 상임부회장, 鄭源根 부회장, 金兩源 부회장 등 科總 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인 과총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핵심부분이 될 과학기술진흥에 모든 과학기술인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표위원은 鄭助英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신한국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진흥방안 및 과총활성화 5개년 계획(안)을 보고받고 과총이 과학기술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총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조직 및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기초과학육성을 위해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학회·학술활동지원금의 추가확대 등 과총관련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내년부터 과학두뇌은행 본격운영 해외기술인력 중소기업현장 파견

科總 회장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방문 협력방안협의



◇成樂正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成樂正 회장과 鄭助英 상임부회장은 6월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朴尙奎 회장을 예방하고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문제 등 양기관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상

호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침체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인 과총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특히 과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과학두뇌은행(Brain Pool)을 통해 유능한 해외의 동포과학기술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 공동연구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오는 8월 2일부터 14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는 93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에 중소기업 경영자 및 기술자들이 많이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과총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과총 成회장과 鄭 상임부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회장에게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건설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혁신시책에 호응하여 중소기업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발전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백70개의 회원단체를 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2년 설립된 단체이다.

연구개발체제 대폭 개편 98년까지 GNP 3~4% 수준

金始中장관, 청와대서 과학기술정책 報告

정부는 오는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도 현 26%에서 4%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金始中과학기술처장관은 6월11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98년도 제1회 기술개발촉진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경제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金장관은 연구개발체제의 개혁방안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산업기술, 공공기술, 기초·종합연구 등 기능별로 특성화·차별화 하고 이에 따라 지원방식과 운영체제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객관적인 연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연구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연구성과가 나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비지원을 중단하는 등 각종 혜택을 차등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金장관은 또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추진체제의 개선을 위해 △상공부는 공업기반기술, △체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보사부는 보건의료기술, △교통부는 고속전철기술, △환경처는 환경공학기술 등 각 부처의 기술수요에 따라 소관분야의 과학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중심부처인 과기처는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의 설정과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민과학화운동을 새 정부의 국민의식 개혁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과학기술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을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인 연구중심권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학의 우수한 연구집단을 중점 육성하고 산·학협동 연구센터등을 대학내에 조성하여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金泳三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나 국제경쟁력은 국가의 연구개발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연구개발체제의 과감한 개편과 연구자들의 의

식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탈냉전이후 선진국들의 국방기술정책이 군과 민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방기술과 민간산업기술을 상호연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핵심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체제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전제한 뒤 『러시아가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와 공동으로 협력, 양국간 공동기술연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술개발촉진보고회에는 李經植부총리, 金始中과기처장관 등 경제부처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산업계, 학계, 연구소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

월간 「과학과 기술」

독자회원모집

지난 1968년에 창간된 월간 「과학과 기술」지가 그동안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 발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독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월간 「과학과 기술」은 과학기술정보의 교량역할은 물론 국민생활과학화를 통한 과학기술진흥의 유익하고 활발한 광장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본 「과학과 기술」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대변지로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회 출판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자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성원있으시길 바랍니다.

- 연금회비 : 20,000원 ● 대금납부 : 은행지로 7516416
- 신청서 및 회비 보낼 곳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홍보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35-703